

SKT, 마포 핫플 잼플레이스(ZEM PLAYS)에서

‘꿀잼스쿨’ 연다

**-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초등학생과 부모 대상 온/오프라인 클래스 응모**

**- 추첨 통해 총 9개 그룹 선발해 6월 29일부터 온/오프라인 클래스 운영 예정**

**- 방문객 만족도가 높아 마포 인근 커뮤니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중**

|  |
| --- |
| **※ 엠바고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** |

**[2021.6.17]**

아이주도형 영어놀이공간으로 개관 3개월만에 마포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잼플레이스(ZEM PLAYS)가 새로운 고객 참여프로그램을 선보인다.

SK텔레콤(대표이사 박정호, [www.sktelecom.com](http://www.sktelecom.com))은 마포에 위치한 아이들 대상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인 잼플레이스에서 영어 놀이형 클래스 ‘꿀잼스쿨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SK텔레콤이 지난 3월 23일 오픈한 잼플레이스는 SKT의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유무선 통합 브랜드 ‘잼(ZEM)’의 첫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로서, 아이들이 방과 후 편히 들러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통해 영어를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. 그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예약 방문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월말까지 모든 시간대의 예약이 마감되어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.

특히 방문자의 72% 이상이 마포구/용산구 등 인근 지역 거주자이며, 지인 추천을 통한 방문이 54%에 이르러 마포 지역의 커뮤니티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.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7점 만점에 6.2점 정도로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.

고객 참여 프로그램이 좀더 다양해 졌으면 좋겠다는 고객들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기획된 ‘꿀잼스쿨’은 초등학생과 부모 대상의 온라인 클래스 및 잼플레이스에서 직접 진행되는 초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클래스의 3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.

초등학생 대상의 온라인 클래스는 영어 학습 수준에 따라 3가지 레벨로 나누어 각 레벨 별 2그룹으로 진행된다. 부모 대상의 온라인 클래스는 1개 그룹 3주 단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. 각각의 클래스는 영어책을 읽고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 및 교육 전문가가 진행한다.

잼플레이스 현장에서 진행될 오프라인 클래스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룹당 4명의 학생들에 대해 책읽기 및 점토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포함해 1주일 단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.

6월 29일부터 진행될 꿀잼스쿨 모집 응모는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잼플레이스 사이트(www.zemplays.com) 에서 진행될 예정으로, 당첨자 발표는 6월 25일이며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꿀잼스쿨** | **온라인 클래스** | **오프라인 클래스** |
| 대상 | 초등학생 | 부모 | 초등학생 |
| 클래스 수 | 6 개 그룹(3개 레벨, 각 2그룹) | 1 개 그룹 | 2개 그룹 |
| 그룹 당 인원 수 | 8명 | 8명 | 4명 |
| 총 모집 인원 | 48명 | 8명 | 8명 |
| 선발 주기 | 3주 단위 프로그램(3주 후 신규 인원 선발) | 1주 단위 운영(매주 신규 인원 선발) |
| 클래스 주제 | 영어책 읽고 토의하기 | 부모를 위한 영어책 읽기 | 책 읽기 + 체험활동 (ex. 점토 만들기 등) |

 SKT 한명진 마케팅그룹장은 "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온/오프라인 클래스를 통해 미디어와 기술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고, 책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"며 “5G 시대를 맞아 SKT는 영어 중심의 클래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스마트폰, 미디어 사용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.” 라고 밝혔다.

|  |
| --- |
| **※ 사진설명**SK텔레콤은 마포에 위치한 아이들 대상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인 잼플레이스(ZEM PLAYS)에서 놀이형 클래스 ‘꿀잼스쿨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 사진은 잼플레이스 클래스룸에서 오프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는 모습. |

**▶ 관련문의 : SKT PR실 기업PR팀 김재익 매니저(02-6100-6714)**

**<끝>**